

김선호 “내 불찰, 그분께 상처”… ‘1박2일’ 하차→차기작 비상

전 여자친구, ‘혼인 빙자 낙태 종용했다고 주장’
“입장 늦은 점, 죄송… 처음 겪는 일에 두려움”

배우 김선호가 최근 불거진 사생활 의혹 관련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고 직접 입장을 밝혔다.

김선호는 20일 소속사 솔트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입장이 늦어지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얼마 전 제 이름이 거론된 기사가 나가고 처음으로 겪는 두려움에 이제야 글을 남기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저는 그분과 좋은 감정으로 만났다. 그 과정에서 저의 불찰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그분에게 상처를 줬다”며 “그분과 직접 만나서 사과를 먼저 하고 싶었으나 지금은 제대로 된 사과를 전하지 못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우선 이 글을 통해서라도 그분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저를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실망감을 드려서 죄송하다”며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기에 김선호라는 배우로 설 수 있었는데 그 점을 잊고 있었다. 부

족한 저로 인해 작품에 함께한 많은 분들과 모든 관계자분들께 폐를 끼쳐서 죄송하다.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두서없는 글이 많은 분들의 마음에 온전히 닿지 않을 걸 알지만, 이렇게나마 진심을 전한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솔트 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김선호 배우의 개인사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이번 일로 인해 실망과 피해를 드린 많은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선호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되면서 불거졌다. 해당 글은 ‘대세 배우 K모 배우의 이중적이고 뻔뻔한 실체를 고발한다’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자신이 K 배우의 전 여자친구로 지난해 초부터 교제해 헤어진 지 4개월이 넘어간다고, 혼인을 빙

자해 낙태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 이별의 후유증뿐 아니라 소중한 아이를 지우게 하고, 혼인을 빙자해 작품할 때 예민하다는 이유로 스타가 됐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회생을 요구했던 행동들로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가 심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후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브 이진호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배우를 김선호로 지목하며, 그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됐다.

이와 관련해 김선호의 소속사는 전날 “현재 익명으로 올라온 글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사실 관계가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만큼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좋지 않은 일로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루 뒤인 이날 김선호가 사실상 논란이 된 내용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선호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교제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에게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선호는 현재 출연 중인 KBS 2TV 예능 ‘1박 2일’ 시즌4에서 하차하게 됐다. 최근 논란을 두고 ‘1박 2일’ 시청자 게시판에는 김선호의 하차를 요구하는 글들이 이어졌으며, 이를 반대하는 의견이 맞서며 논쟁이 일

었다. ‘1박 2일’ 시즌4 제작진은 이날 “최근 논란이 된 김선호씨의 하차를 결정하게 됐다. 이미 촬영된 방송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편집해 시청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차기작들과 광고계도 비상이 걸렸다. 김선호는 차기작으로 영화 세 편의 출연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다음 달 촬영 예정인 박훈정 감독의 영화 ‘슬픈열대’로 스크린에 데뷔할 예정이었다.

또 내년 1월 김덕민 감독의 유니버스 영화 ‘도그데이즈’에도 출연 예정이었고, 3월에는 영화 ‘엑시트’의 이상근 감독이 메가폰을 잡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 ‘2시의 데이트’에서 그룹 ‘소녀시대’ 출신 배우 임윤아와 호흡을 맞출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논란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으면서 출연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최근 주목받으며 촬영한 광고 역시 상당수라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일부 기업들은 논란이 불거진 후 김선호 출연 영상 및 사진을 SNS 등에서 비공개로 돌려거나 삭제하기도 했다.

지난 2009년 연극 ‘뉴 보잉보잉’으로 데뷔한 김선호는 2017년 브라운관



으로 활동을 넓혀 드라마 ‘김과장’, ‘최강 배달꾼’, ‘투깝스’, ‘미치겠다, 너땀에!’, ‘백일의 낭군님’, ‘오라차차 와이키키2’, ‘유령을 잡아라’ 등에 출연했다. 특히 지난해 종영한 드라마 ‘스타트업’과 최근 방송된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로 큰 인기를 끌었다.

수지·정은채, 쿠팡플레이 시리즈 ‘안나’ 출연…내년 공개



배우 수지, 정은채, 김준한, 박예영이 쿠팡플레이 시리즈 ‘안나’에 출연한다.

20일 쿠팡플레이에 따르면 새 시리즈 ‘안나’가 캐스팅을 확정하고 지난 15일 첫 촬영에 돌입했다.

‘안나’는 사소한 거짓말을 시작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된 여자의 이야기를 그린다.

수지가 사소한 거짓말을 시작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된 ‘유미’ 역을 맡아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다. 정은채는 타인에 대한 배려도 악의도 없이 우월한 인생을 즐기며 사는 ‘현주’로 분해 유미와 미묘한 긴장감을 형성한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솔직하고 반듯한 매력을 보여준 김준한과 ‘갯

내년 공개될 예정

마을 차차차’의 ‘왕작가’로 활약한 박예영이 각각 남다른 야망으로 목표 지향적인 삶을 추구하는 유미의 남편 ‘지훈’과 유미가 유일하게 믿고 곁을 내어주는 선배 ‘지원’ 역으로 출연한다.

첫 촬영을 시작한 수지는 “시나리오를 읽을 때부터 ‘안나’에 몰입 듯 빨려 들어갔다. 기본 좋은 긴장감으로 준비에 임했고, 촬영 날이 하루 빨리 다가 오길 손꼽아 기다렸다. 이주영 감독님과 스태프들과 함께 우리들이 만들어 갈 ‘안나’에 대해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은채는 “대본의 강렬함에 매료됐다. 새로운 캐릭터를 선보일 수 있어서 기대되고 매력적인 배우들, 훌륭한 연출진과 함께 작업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준한은 “대본을 읽자마자 함께 하고 싶었다. 밀도 높은 스토리에 녹아 있는 감독님의 시선이 흥미진진했다. 작품에 참여하게 되어서 감사할 따름”이라고 했고, 박예영은 “멋진 작품에 좋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 좋은 결과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나’는 ‘싱글라이터’를 통해 연출력을 인정받은 이주영 감독이 연출과 각본을 맡았다. 이 감독은 “‘안나’는 상대적 박탈감으로부터 시작한 거짓말로 결국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일부를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라고 밝혔다.

‘안나’는 내년에 공개될 예정이다.

‘워낭소리’ 감독 신작 ‘매미소리’, 오스틴영화제 초청

내년 2월 개봉

영화 ‘워낭소리’를 연출한 이충렬 감독의 신작 ‘매미소리’가 제28회 오스틴영화제에 초청됐다.

20일 배급사 드림팩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매미소리’는 제28회 오스틴영화제 ‘Marquee Film’(마키 필름) 부문에 초청됐다.

오스틴영화제는 미국의 최대 영화제 중 하나로, 작가와 영화 제작자들의 예술·비즈니스를 발전시키고 영화, TV, 뉴미디어에 대한 공헌을 인정해 주기 위해 시작됐다. 올해는 21일부터 28일까지 온·오프라인 개최된다.

‘매미소리’는 전남 진도 지방의 전

통 풍습으로 출상(장례를 치른 집에서 상여가 떠나는 것) 전날 밤 초상집 마당에서 광대들과 상여꾼들이 벌이는 민속놀이인 ‘다시래기’를 중심으로 부녀의 갈등과 화해를 그린 영화다.

특히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섬 진도를 배경으로 울로케이션(진도에서만 촬영)으로 진행, 우리 고유의 전통 소리도 보여줄 예정이다. 배우 이양희, 주보미, 서연우, 허진, 송용식 등이 출연했고, 가수 송가인이 특별출연했다.

이충렬 감독은 “12년 만에 탄생한 영화다. 한 여명의 공기를 가득 메우는 매미의 울음소리처럼 영화가 사람들의 마음에 울려 퍼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내년 2월 개봉



박재정, MSG위너비 열풍 이을까…내달 30일 앨범 발매

3개월 만에 신곡 발매

가수 박재정이 3개월 만에 신곡을 발매한다.

20일 소속사 로맨틱 팩토리에 따르면 박재정은 오는 30일 오후 6시 음원 사이트에 새로운 더블 싱글 ‘너의 그 사람’을 공개한다.

타이틀곡 ‘너의 그 사람’과 ‘마지막 노래’ 2곡이 수록된다. ‘너의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있는 친구를 좋아하는 남자의 짝사랑 이야기를 담

은 노래다.

박재정은 “존경하는 뮤지션 토이(유희열) 선배님의 밝은 슬픔을 오마주한 곡이다. 이런 톤의 노래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다. 특히 편곡에 신경을 쓴 노래”라고 설명했다. 박재정은 뮤직비디오에도 직접 출연했다.

수록곡 ‘마지막 노래’는 박재정의 단국대학교 재학 시절 스승인 권우가 지난해 10월 발매한 동명곡을 리메이크한 노래다. 박재정은 편곡가 현지웅과 미리 편곡을 하고 권우에게 허락을



받으려 갔다.

한편, 박재정은 올해 MBC TV ‘놀면 뭐하니?’를 통해 결성된 프로젝트 보컬 그룹 ‘MSG위너비’의 멤버로 활약하며 재조명됐다.

유아인, 이정재·이승기 이어 ‘2021 AAA’ 참석 확정

12월 열리는 시상식 참석

연상호 감독의 넷플릭스 신작 ‘지옥’으로 돌아올 유아인이 ‘2021 Asia Artist Awards’에 참석을 확정했다.

20일 주최 측에 따르면 유아인은 오는 12월 2일에 열리는 ‘2021 AAA’ 시상식 무대에 오른다.

유아인은 ‘버닝’, ‘사도’, ‘베테랑’ 등의 굵직한 영화를 비롯해 드라마 ‘밀

회’, ‘육룡이 나르샤’ 등을 통해 장르에 구애 받지 않는 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선보였다.

유아인은 제41회 청룡영화상, 제57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수상했다.

뿐만 아니라, 제25회 판타지아국제영화제와 제15회 아시아필름어워즈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며 대중과 평단의 지지를 받는 배우임을 입증했다.

